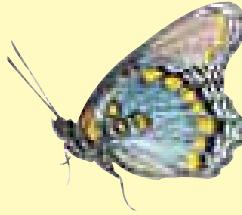


‘합평의 기적’



나비·곤충엑스포 입장객 한달만에 100만명 돌파



합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입장객이 개막 한달여만인 20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8일 개막된 합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한달째인 지난 18일까지 96만명의 입장객을 기록한 데 이어 20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나비·곤충 엑스포는 1일 평균 3만여명의 관객이 방문했으며 지난 11일에는 하루 최다 입장객인 8만5천여명이 대회장을 찾기 도했다.

나비·곤충 엑스포 입장객이 단기간내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세계 최초의 환경 엑스포로 자연생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된다.

특히 장수 풍뎅이 체험관과 누에관, 국제곤충관과 친환경 농업관 등이 청소년들의 체험 코스로 자리 잡는 등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체험학습관·순금 황금박쥐 인기

각계 유명인사들 방문도 줄이어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합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각지의 유치원과 초·중·고 1천여개교, 17만여명의 엑스포 관람이 예약돼 있다.

또 깊은 산속의 실제 동굴을 옮겨 놓은 듯

한 황금박쥐 생태관이 관광객들의 필수 관람 코스로 자리 잡는 등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순금 162kg(55억여원)으로 만든 국내 최대의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이 다양한 전통 문양을 배경으로 전시돼 합평엑스포만의 독특한 볼거리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한편 정·관·경제계 등 각계 유명인사들의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18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공형진 하나님당 국회의원이, 17일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정상명 전 겹찰총장이 엑스포를 관람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9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와 나비 날리기 행사를 하며 엑스포 개막을 축하했다.

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회 참석차 1박2일 일정

으로 합평엑스포장을 찾았다.

이밖에 김성훈 상지대총장과 조순전 부총리, 장경동 목사, 생태나라 운동 서경석 공동 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각 겹찰청 겸사장,

고등법원 판사 등 각계 인사들의 방문

이 따르고 있다.

2008 합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는 합평군

합평읍 일대 109만㎡의 엑스포공원에서 오는 6월 1일까지 계속된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강진군, 3년간 140억 투입

‘남도맛 신활력 사업’ 추진

‘남도의 맛 아카데미’ 개설

강진군이 남도의 맛을 거리를 활용해 산업화를 모색하는 ‘남도맛 신활력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3년간 140억원을 투입해 남도의 맛을 알릴 지역리더 양성과 고품질 음식재료 생산기반 구축, 관광과 마케팅, 홍보 등 신활력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강진군은 남도의 맛을 내는 핵심인 고품질 음식재료 생산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웨딩 잡곡생산단지 조성과 콩과 토하의 품질 관리 지원, 남도의 맛을 내는 식재료 생산·가공·저장, 연구 지원에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또 남도의 맛을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녹색관광 마케팅 개발, 남도의 맛 테마마을 조성,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 등도 이뤄지며 남도한식 개발, 지역 음식점 관계자 교육과 이미지 개선 노력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남도의 맛 아카데미’가 개설되고 심포지엄 개최,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 녹색문화대학 등이 운영된다.

군은 강진청자 등과 맞물려 3년간 5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맛을 거리를 통해 120억원의 직접 소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활력 사업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에 관광·유통 등이 결합한 아이템을 선정해 생산과 가공·판매·교육·마케팅 등을 포괄하게 되며 특산품이 아닌 ‘음식’을 테마로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나주 공산 ‘주몽 세트장’ 새단장

민자 유치로 관광 인프라 확충

KBS ‘바람의 나라’ 유치 나서

나주시는 최근 ‘바람의 나라’ 촬영에 필요한 고구려궁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15억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주몽’ 세트장을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BTO(Build-Transfer-Operate: 투자를 통한 장기운영권 보장)방식을 도입해 기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나주시는 185억원이 투자되는 KBS 36부작 수목드라마 ‘바람의 나라’ 오픈세트장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제작사인 초록뱀(주)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을 배정했다.

나주시는 ‘주몽 세트장’의 위탁운

영을 비롯해 공사 시공권, 자파홍보 등을 조건으로 중흥건설이 10억원을 투자하는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운영을 통해 경영안정성 확보는 물론 시설 확충 및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침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주몽’ 세트장 일대가 영산강을 끼고 도는 천혜의 절경을 갖추고 있어 인근 선착장에서 영산강 황포돛배 취항식사를 갖는 등 다양한 개발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다시마 말리기 청정해역인 원도군 금일 앞바다에서 채취한 다시마를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해 웨빙식품으로 꼽히고 있는 다시마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도군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원도=정은조기자 eejchung@

화순 만연산에 ‘도시숲’ 조성

전국 최초 산림청·화순군 공동 … 26만4천㎡ 규모

도시숲 조성은 최근 산림청 주관 ‘도시숲 조성용 매수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18억원의 토지매수비와 도시숲 조성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산림청과 화순군은 만연산 일대 8만여평을 매입한 뒤 화순군이 영구보상 임대 형식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게 된다.

도시숲 조성예정지 주변은 2002년 도부터 화순군이 자체적으로 산림공원을 조성해 주말이면 2~3천명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올해 말에 완공될 건강 치료용 지역 특화 숲(147㏊)이 위치하고 있다.

화순군은 도시숲을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만연산자구 산림테마공원’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나주·담양·광주호 수문 개방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지난 9일 장성호 통수를 시작으로 나주·담양·광주호 수문을 열어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

전남지역본부는 이에 앞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고 용·배수로 준설과 수리시설을 일제점비를 실시했다.

18일 현재 농촌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9만7천여㏊ 가운데 12%가 모내기를 마쳤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완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대호 평균저수율은 나주호

83%, 담양호 59%, 광주호 97% 등 75%로 평년 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봉조 본부장은 “청정용수 공급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수로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매우 빠른 관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한국 100세를 살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좀처럼 물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봄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헥산화체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가 지난 9일 장성호 통수를 시작으로 나주·담양·광주호 수문을 열어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

전남지역본부는 이에 앞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고 용·배수로 준설과 수리시설을 일제점비를 실시했다.

18일 현재 농촌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9만7천여㏊ 가운데 12%가 모내기를 마쳤으며 오는 6월 20일까지 완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대호 평균저수율은 나주호 83%, 담양호 59%, 광주호 97% 등 75%로 평년 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봉조 본부장은 “청정용수 공급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수로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매우 빠른 관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활성화제 보강·총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활성화제 보강·총합비타민 C·E, B群 등 활성화제 보강
•피로, 눈의 피로 •기피·수면계

제품문의 080-022-1010(수신자부과): www.aronamin.com

건강이
재산입니다!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흡수기 잘 키는 활성비타민 B, B6, B9, B12 및 비타민 E
•피로, 신체통증, 관절통 •설증, 천식 치료제



비타민 C
120mg

1일 2회 복용하세요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